

전주시내버스 이용 더 편리하게

시, 충경로객사·안행교·전북대 등 주요 정거장에 환승정보 안내도 부착
환승 방면별 노선번호·인근 환승정류장 정보 약도 등 함께 표기 편의 제공

전주시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내버스 정거장에 환승정보와 환승정류장 약도를 표시한 안내도를 부착했다. 이에 따라,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전주 시민과 시내버스 노선 정보를 잘 모르는 관광객이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이용객들이 많고 여러 행선지의 버스가 지나는 충경로객사와 안행교, 전북대학교 정거장 등 전주 시내 25개 정거장에 환승정보 안내도를 부착했다고 3일 밝혔다.

승강장 옆면에 부착된 안내도에는 주변의 환승 정거장을 표시한 약도도 그려져 그간 어느 버스를 어떤 정류장에서 타야 하는지를 몰라 버스 이용을 꺼려하던 전주를 찾은 관광

객과 초행길을 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교통편을 배려하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된 안내도의 글자크기를 기존의 다른 안내도보다 키웠다. 승강장 의사 위반에 기존에 부착됐던 버스 번호별 노선도는 전체노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 때문에 글씨 크기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어 시인성이 떨어졌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발자생존권인 시내버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시내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운영, 평가를 통해 대중교

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왔다.

또한, 시는 시민체험단 600명을 모집해 자가용 대신 걷거나 자전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전 국민의 교통비 30%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로 월 4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 구입 시 10%(5,000원),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1km당 약 200원 적립돼 최대 20%의 금액(월간 약 1만1,500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 총 30%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발간된 개선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에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내 최초로 전주 시내버스 내부에 전체노선과 실시간 버스 위치, 주요환승정류장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 420대의 전주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와 명품버스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250대에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노선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170대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여 보다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시내버스가 전주 시민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이용관련 정보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 전주 시내버스 종합시간표와 주요승강장별 방면안내도를 비치했다. /송효철 기자

‘유권자에 홍삼 세트라니?’

도선관위, 이항로 진안군수 수사 검찰 의뢰

이항로 진안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전 추석과 설 명절에 다수의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7만원 상당)를 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선관위를 방문해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 명에게 돌렸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가 제출한 녹취파일

과 사진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했으며, 시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12월 13일) 만료가 얼마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는 한편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군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혁신도시·만성지구 기지제가 ‘확~’

전주시, 순환형 산책로 조성 등 생태공원으로 탈바꿈기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친수공간인 기지제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바뀐다.

특히, 기지제에도 덕진연못과 아중호수처럼 시민들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수중 데크가 설치되고 낮은 경사로 된 산책로가 생겨나 장애인과 노약자 등 6대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내년 말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해 기지제에 주변에 총 길이 1.37km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덕진연못과 아중호수, 기지제, 오송재 등 6대 호수를 명품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혁신도시 조성 당시 조성된 기존 산책로를 연결해 기지제 전체를 순환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사업비는 만성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하여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LH에서 직접 시행을 맡는다.

LH는 실시설계와 자체 자체 공법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는 혁신도시 방향에 조성된 기존 산책로가 단절돼 동일 코스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동선과 경관의 단조움을 보완하기 위해 기지제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총 1.37km 구간(폭 2.5m) 중 800m구간에는 물 위를 걸으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중 데크가 설치되고, 육상 산책로 540m 구간과 30m 길이의 교량도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과 완만한 경사도로 계획했으며, 기지제의 습지와 수중, 육상 등 구간별 다양한 보행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문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기지제 산책로는 도시개발로 삭막한 도시에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건강한 정서함양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 대한 욕구 충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시원하게 내리는 겨울비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비가 내린 3일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교정을 지나고 있다.

‘교통사고 내고 그냥 튀냐?’

경찰, 사후 조치 하지 않고 자리 뜬 전주시의원 조사

교통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전주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월9일 전주시의 한 경로당 앞에서 공용차량을 몰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도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설날을 앞두고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에 제공하는 쌀과 화장지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사고 발생 시기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A의원

이 사고 처리를 바로 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주민센터 직원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A의원은 "위문품을 전달하는 정신없는 상황에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이후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등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통사고를 낸 정황과 의혹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라산 국립공원 벤치마킹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간담회

전주시 완산구 생태공원복지과(과장은 시문)는 지난 1일 국내 공원관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생태공원복지과는 성판악에서 시작해 한라산 백록담까지 등반하며, 등산로 및 공원내 계단과 로프 등 안전시설과, 벤치 등 주요 편의시설을 보았으며, 특히 등산로에 줄 펜스를 설치한 것에 대해 우리 시 등산로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원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환)는 지난 3일 2018년도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및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여해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찾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운영된 총 11개 프로그램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논의했다. /송효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